

# 경남대표도서관 추천 도서



## 시간은 없고, 잘하고는 싶고

10년 차 서점인의 일상 균형 에세이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삶,  
어찌 아름답다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엄지혜(《태도의 말씀》 저자)  
조각 시간으로 채우는 일상의 만족감과  
틈을 내서 하는 일의 소중함에 관하여

푸른숲

## 시간은 없고, 잘하고는 싶고

김성광 지음

푸른숲

일 818-김54시

책의 따지는 이 책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조각 시간으로 채우는 일상의 만족감과  
틈을 내서 하는 일의 소중함에 관하여”

책이 좋아서 서점에 취직했고,  
스스로에게 관참은 서점원이 되고 싶어  
틈만 나면 책을 읽었던 저자는  
아이가 태어나자 책 읽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집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틈을 내 나를 돌아보고,  
책 한 줄이라도 읽을 시간이 절실했던 그는  
큰 덩어리의 시간 대신 조각 시간을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은 없고, 잘하고는 싶고.  
일도 잘하고 싶지만, 잘 쉬고 싶고.

‘어느 하나에 집중해 대단히 잘할 때보다  
어느 하나에도 소홀하지 않을 때 행복한’ 사람들에게  
이 책을 권합니다.

# 경남대표도서관 추천 도서

뉴턴의 아틀리에

김상욱 × 유지원



과학과 예술,  
두 시선의  
다양한  
관계 맺기



“경이롭다.”

이어령(전 문화부장관)

“교차와 확장의 순간들을  
경험할 것이다.”

김초엽(소설가)

민음사



## 뉴턴의 아틀리에

김상욱, 유지원 지음

민음사

일 600.04-김52뉴

틈만 나면 미술관을 찾는 과학자와  
물리학회까지 참석하며 과학에 열정을 보이는 디자이너가  
함께 쓴 책입니다.

서로 다른, 극단의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두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리는 미술이다. 사진기가 등장하기까지 과학자는  
자신이 관찰한 결과를 그림으로 기록해야 했다.  
그린다는 것은 대상의 공간적 구조를 자신의 마음 속에  
내재화하여 자신만의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과학이다.’*

물리학자가 예술에서 과학을 보는 것처럼,  
타이포그래퍼는 열역학 제2법칙에서  
생명력이 보이는 예술적 패턴을 읽습니다.

이렇듯 결국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들은 관계 맺기로 이어져 삶으로 향하게 됩니다.

# 경남대표도서관 추천 도서

시선으로부터,



정세랑  
장편소설

“이 소설은 무엇보다 20세기를 살아낸 여자들에게 바치는  
21세기의 사랑이다.”

문학동네

## 시선으로부터

정세랑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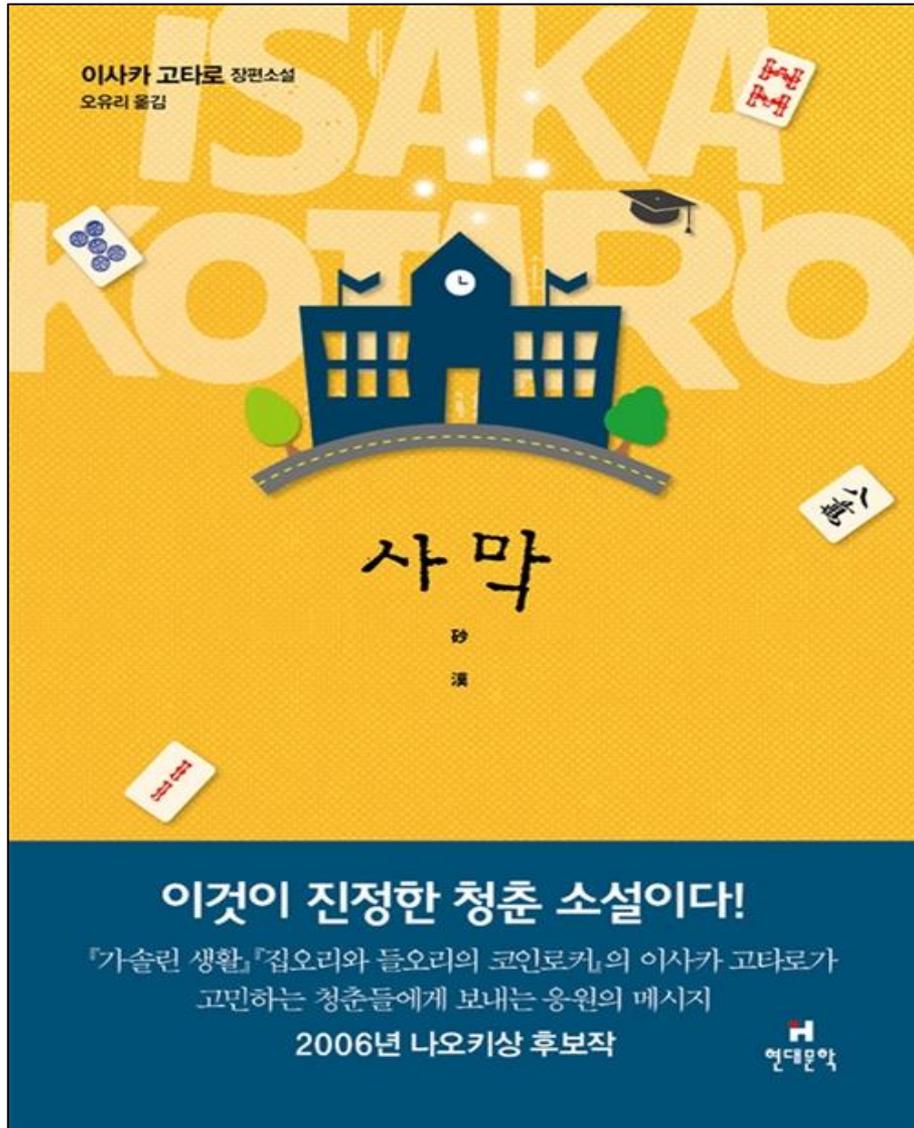
창비

일 813.7-정54시

“기일 저녁 여덟시에 제사를 지낼 겁니다.  
십 주기니까 딱 한 번만 지낼 건데,  
고리타분하게 제사상을 차리거나 하진 않을거고요.  
각자 그때까지 하와이를 여행하며 기뻐던 순간,  
이걸 보기 위해 살아 있었구나 싶게 인상 깊었던 순간을  
수집해오기로 하는 거예요.  
그 순간을 상징하는 물건도 좋고,  
물건이 아니라 경험 그 자체를 공유해도 좋고.”

한국과 미국에 나뉘어 살고 있는 한 가족이  
단 한 번뿐인 제사를 지내기 위해 하와이로 떠납니다.  
제목처럼 ‘시선’으로부터 뺏어져 나온,  
그녀의 두 번의 결혼으로 만들어낸  
이 독특한 가계의 구성원들은 하와이에서  
각자 그들의 방식으로 그녀를 기리기 시작합니다.  
홀라춤을 배우기도 하고, 박물관에서 며칠을 지내기도 하며,  
현지 원두를 찾아 온갖 마켓들을 헤매기도 하며,  
활화산을 오르거나 서핑을 배우기도 합니다.  
과연 이들은 어떤 순간들을 수집해올까요?

# 경남대표도서관 추천 도서



## 사막

이사카 고타로 지음

현대문학

일 833.6-이52사

“우리들이 마음만 먹으면,  
사막에, 눈이 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은 평범한 대학생 5명의 청춘성장소설입니다.  
단지 평범한 대학 생활 중에  
빈집털이 소탕 작전이나 초능력 같은 비현실적인 일들이  
소설 중간 중간에 일어날 뿐입니다.

사회라는 ‘사막’에 들어가기 전, 대학이라는 ‘오아시스’에  
있다고 칭해지는 이들에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아시스’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힘든 일들이  
‘사막’에서는 벌어진다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작가는 ‘오아시스’ 역시 ‘사막’의 일부임을 주인공들이  
겪는 일련을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이 어디든지 사막임을  
생각할 때 가져야 할 삶의 태도들을  
이 책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경남대표도서관 추천 도서



## 마을의 진화

간다 세이지 지음

반비

일 331.47-간22마

“가미야마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 마을에는 여러 사람이 드나들고  
지역의 사람들을 끌어들이며 무언가를 만들어 나갑니다.  
예를 들어 영상을 만들고 있지만  
다른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고,  
숲과 식물에 정통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우러져 무언가 새로운 일이 생겨납니다.  
같은 분야에 고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미있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마을에 무언가를 시작해볼까**  
생각하게 하는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시험하게 해준다고 할까요.”

일본에서 20번째로 소멸가능성이 높은,  
가미야마는 어떻게 계속해서 진화할 수 있었을까요?



## 죽은 자의 집 청소

김완 지음

김영사

일 334.9-김65죽

‘시(詩)’를 전공한 저자는 죽은 자의 집을 청소하는 특수청소부가 됩니다. 특수청소부로 온갖 현장을 다니는 작가의 시선을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고독사의 현실, 고독사의 민낯을 마주하게 됩니다. 세대와 성별을 가리지 않는 고독한 죽음 이야기를 하나 둘 접하다보면 고정관념이 점점 깨집니다. 생을 포기하기 직전까지 어떻게든 살아보려 삶의 절벽 끝에서 아등바등하던 흔적이 현장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피와 오물, 생전 일상을 유추할 수 있는 여러 유품을 치우며 작가는 삶에 대해 사색합니다. 그렇게 이 책은 ‘죽음’을 소재로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삶’을 이야기합니다. 작가의 말처럼 ‘누군가의 죽음을 돌아보고 의미를 되묻는 이 기록이 우리 삶을 더 가치 있고 균세계 만드는 기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 경남대표도서관 추천 도서

## 내가 너의 첫 문장이었을 때

김민섭 외 지음

웅진지식하우스

일 818

*“그렇게 일곱 명의 작가들은 자신의 삶에  
깊게 새겨져 있던 기억들을 하나 둘씩 걸어 올려 주었습니다.  
서로가 꺼내든 이야기에는  
모두 자신만의 힘과 매력이 있습니다.”*

이 책은 7인 7색 연작 에세이집으로  
3개월간 ‘작가 초대 플랫폼 북크루’의 에세이  
새벽 배송 서비스 <책장위고양이>를 통해  
주 7일 새벽 6시마다 독자들의 메일함을 두드렸던  
총 63편의 글을 모은 작가 7인의 연작 에세이집입니다.  
빈틈없는 라인업으로 화제가 되었던 이번 연재는  
어느 것 하나 남 주기 아까운 종합선물세트처럼,  
단 하나의 글도 허투루 넘길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언젠가 지친 일상을 위로해주던  
라디오 DJ의 클로징 멘트처럼,  
할머니가 한 알씩 꺼내주던 ‘사랑방 알사탕’처럼  
당신에게 기쁨과 위로가 필요할 때  
이 책의 글들은 꺼내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 적정 소비 생활

생활경제코치 박미정의 불안이 사라지는 돈 관리



내 삶의 적정 연비는 얼마인가?

경제란 한정된 재화를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는 것  
버는 돈 내에서 잘 쓰면  
인생이 놀랍게 즐거워진다

씨네21북스

### 적정 소비 생활

박미정 지음

씨네21북스

일 327.04-박38적

“나는 왜 항상 돈이 부족할까?”

저자는 돈이 목적이 아닌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경제생활’이 무엇이 고민합니다.

결국 우리는 돈이 적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소비로 상처 받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는 돈 관리를 시작하기에 앞서  
내가 어디에 돈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 가는 데 돈 가고 돈 가는데 마음이 간다고 합니다.

돈을 쓰는 것을 보면  
내 마음의 우선순위를 알 수 있는데요.  
나의 본래 성향과 우선순위에 맞는 경제적 질서를 확립하여  
내 인생의 적정 연비를 파악하는 것,  
적정소비생활의 첫 걸음 아닐까요?

## 지속가능한 반백수 생활을 위하여

신예희 지음

원하는 만큼 쉬고 필요한 만큼 일하는  
20년차 프리랜서의 라이프스타일 에세이

21세기북스

## 지속가능한 반백수 생활을 위하여

신예희 지음

21세기북스

일 818-신64지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으면서 뭐가 나에게 맞고  
뭐가 잘 맞지 않는지, 뭘 할 때 몸과 맘이 편하고  
뭘 할 때 불편하고 힘든지 꽤 알게 되었다.  
이 말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가능성(possibility)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리다.’*

**“돈만 있으면 백수가 체질이지만”**

일만 하느라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은  
우리 모두를 위한 안내서입니다.

일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에 관하여,  
재능과 창의성에 대하여, 번아웃에 대처하는 법에 대하여,  
일부러라도 휴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취향과 안목을 쌓는 것에 대하여,  
돈을 잘 모으고 즐겁게 쓰는 것에 대하여,  
적당한 거리감이 필요한 공적이고 사적인 관계에 대하여,  
내가 나로서 주체적으로 자립하는 것에 대하여  
누구나 고민하며 갈팡질팡하기 쉬운 주제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경남대표도서관 추천 도서



## 마녀체력

이영미 지음

남해의봄날

일 517.3-이64마

“마흔 살은 흔히 생각하듯 인생의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시기가 아니다. 그러니 아무리 세상이 잔혹한 시그널을 보내도 절대로 주눅 들면 안 된다.

더 나아지는 걸 주저하지 말고, 더 도전할 수 있는 걸 포기하지 말자. ‘아, 지금이 내 삶의 절정인가보다’ 싶은 때가 신기하게도 계속 찾아온다.”

책이 좋아서 하루 종일 책에 둘러싸여 책상 앞에서 씨름하던 전형적인 저질체력 사무직 노동자인 저자는 30대에 고혈압 진단을 받게 됩니다. 책상 앞에서 숨만 쉬던 저자는 운동에 도전하게 되고, 결국 철인 3종까지 완주하게 됩니다. 한 명의 사람으로 오롯이 살아있음을 느끼며 자신의 몸에 관심을 기울이는 동안, 삶을 파고드는 자잘한 걱정들이, 마음을 짓누르던 고민이, 지난하게 흘러가던 일상이, 앞으로의 남은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